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4 년 10 월 18 일 오후 5 시,  
이탈리아 베로나 공동체에서  
향년 96 세, 수도 생활 66 년으로  
**마리아 코스탄자 델라이 수녀님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남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성 루카 축일 복음 환호송의 이 말씀으로 코스탄자 수녀님의 삶을 선물로 주신 선한 목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은 선한 목자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으로 단순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성소와 사명에 충실한 빠스또렐라의 증거적 삶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마리아는 1928 년 3 월 26 일 스키아본의 롱가(6 세)에서 태어나 1928 년 3 월 29 일 같은 롱가의 성 요한 세례자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5 년 9 월 12 일 알바노 라치알레-모원으로 입회했고, 1957 년 9 월 2 일에 입수련했습니다. 1958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치알레-모원에서 마리아 코스탄자라는 이름으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첫 서원 후 보나비고(VR) 공동체로 파견되어 유기서원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후 1963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치알레 - 모원으로 돌아와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코스탄자 수녀님은 단순하고 즐겁고 관대하며 사목에 헌신한 기도의 수녀였습니다. 수녀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 유쾌하게 웃을 수 있었고, 그 재능은 투병의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빠스또렐라 수녀님은 최근의 경험에서 성당 감실 앞에서 휠체어를 탄 채 홀로 있는 수녀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수녀님은 코스탄자 수녀님을 주님께 자신을 바칠 때 받은 이름인 '콘스탄자', 즉 굳건함과 인내를 지닌 여성이라는 의미를 간직한 수녀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수녀님의 긴 생애를 종합하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서서 자신과 타인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자매와 형제들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신수녀가 된 후 수녀는 프레마디오 발디덴트로(SO) 공동체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공동체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1974 년 알바노 라치알레-모원으로 돌아와 면학기를 보냈고, 1976 년 펠트레(BL)의 파라로 파견되어 약 38 년 동안 머물며 몇 년 동안 공동체의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2014 년부터 베로나에 본부를 둔 이탈리아 북부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21 년 6 월

이탈리아 두 관구가 통일된 후에도 코스탄자 수녀님은 베로나에 남아 노인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기쁨과 관대함으로 다양한 봉사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2023 년에 갑자기 뇌졸중을 겪은 후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신부전과 그에 따른 심장 순환 정지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큰 인내와 사랑, 친절로 코스탄자 수녀를 돌봐 준 수녀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건강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활기찬 갈망으로 기도와 형제애의 삶을 살다 가신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코스탄자 수녀는 사교적이고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삶을 사랑했으며 작은 것도 즐길 줄 알았고 모든 일에 매우 정확하고 신중했으며 노년과 질병 속에서도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했습니다. 수녀님은 유머 감각과 이야기와 농담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에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녀님을 만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때에도 수녀님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수녀님들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 주셨고, 표현이 서툴러도 수녀님은 말을 잘 알아듣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수녀님에게 마지막까지 생생한 기억력과 명석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녀님은 스스로도 잘 하려고 했고 공동체 수녀님들도 수녀님의 걸을 지키며 연약한 수녀님을 지원하고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도록 도우며 수녀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수녀님의 미소, 다정한 동료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할 수 있는 한) 맑은 목소리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녀님을 병원이 아닌 수녀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모셔다 주신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코스탄자 수녀님,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에 당신을 맡겨드리며, 충실하고 기쁜 빠삐렐라로서 당신의 증거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노드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모인 신부님들, 수녀님들을 위한 성령의 선물과 평화의 선물을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 장

바르셀로나(베네수엘라), 2024 년 10 월 18 일

성 루카 복음 사가 축일